

사찰 장례식장 건립 '숨통'

정부 법령완화·예산책정...조계종 내년2월 지원대상 선정

생로병사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부처님의 도장에서 화할 수 있는 도심 사찰 장례식장이 건립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초 종교시설 또는 공공시설 부설 장례식장과 지역사회주민이용 개방을 전제로 한 병원장례식장, 그리고 전문장례식장 등

관계기관에 장례식장 설치자금 융자지급안을 시달렸다. 이와 관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난달 말 전국 25개 교구본사를 비롯 1백여 사찰에 장례식장 신·증축에 대한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보건복지부는 96년도 정부예산안에 장례식장 지원을 위한 재투자자금 50억

원을 반영, 내년 2월경 장례식장 확충을 위한 지원대상을 선정해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장례식장의 건립은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상 그린벨트에 설치불가, 지역주민의 반발우려등 설치운영 여건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장례식장 건립은 각 사찰로 확산되고 있는 납골당과 함께 건전한 장례문화를 이끌어갈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협의·보완된 안에 따르면 관립료 책정 및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관립료 위원회를 두며 관립료위원회는 총무부장 기획실장 재무부장 문화사회부장을 당연직으로 한 11인~15인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위원장은 총무부장이 당연직으로 맡으며 위원회 업무는 재무부에서 담당한다.

한편 관립료 수입의 30%를 예전처럼 불사를 위해 총무원과 공동처리하며 총수입의

경우 장례에 따르는 불권과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사찰이 종교공간으로뿐 아니라 사회적 공간기능의 그 역할을 다하게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관립료 관리법안 심의

위원회 구성·분담금 활용등 다뤄

조계종 총무원회는 지난 6일 관립료 사찰주지회의를 열고 관립료 자율화 실시에 따른 관립료 관리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협의·보완된 안에 따르면 관립료 책정 및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관립료 위원회를 두며 관립료위원회는 총무부장 기획실장 재무부장 문화사회부장을 당연직으로 한 11인~15인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위원장은 총무부장이 당연직으로 맡으며 위원회 업무는 재무부에서 담당한다.

한편 관립료 수입의 30%를 예전처럼 불사를 위해 총무원과 공동처리하며 총수입의

17%를 관립료 분담금으로 하되 그중 5%는 한시적으로 중앙승가대 이전기금으로 활용한다는데 동의했다.

특별 구족계 수계산림 17일까지 신청접수

조계종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이 오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범어사 금강계단에 개설된다. <관련인터뷰 4면> 연령 40세 이상 1980년 이전 사미계 수계자로서 구족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수계산림의 접수기간은 11월 14일~17일까지.

복지부는 도심 또는 도심근교 사찰의 시설을 개축하거나 사찰소유지에 장례식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법령을 완화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시책을 강구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이달안에 건설부와 협의를 거쳐 대부분이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있는 사찰 소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완화하고 행정지도도를 강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 능인선원 복지관의 경우 상호회를 구성, 신도가족의 장례시 수의, 빈소 마련 등 각종 활동을 도맡아 해오고 있다. 능인선원 복지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신축 건물 이전과

조계종 119회 총회

종정감사·예산심의

조계종 제119회 정기중앙총회가 지난 3일 총무원 청사 1층 회관에서 15일간의 회기로 개최돼 종정감사 및 안전토의에 들어갔다. 이번 총회에서는 96년도 예산심의 승인의 건을 비롯해 △총무보고 △95년도 총무행정 감사보고 △각종 위원회 업무활동 보고 △재단법인 역경진흥원 △원로의원 추대 △사면 권고 결의 △종법 제·개정 건 등이 상정돼 있다.

“한국불교 사회참여·인재양성 절실”

동국대 경주불교학과 159명 대상 조사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학생들은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34.3%)와 인재양성(21.7%), 포교(21%)강화를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개교 10년을 맞아 불교학과의 현주소와 변화방향을 모색기 위해 지난 4월 불교학과 전학년 1백 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그러나 불교학원 구분아(4.9%)나 역경분야(0%)에 힘써야 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극소수에 불과해 불교학과 학생들이 불교가 대중속에서 거듭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생들은 불교의 가르침은 매우 훌륭하다(66.5%)고 생각하고 있으나 사치하거나 수탈하는 소용없는 스님들의 생활(30.1%)과 신자들의 양보없는 신앙생활(28%) 등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부정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종교를 신앙하는 이유를 묻



음성 고심사 영탑원 조성

○한국불교대원회 음성 고심사(상임법사 권오원)는 경내 1천여평에 30여기 규모의 영탑묘원을 조성했다.

고심사 영탑원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불교의 화장제도를 이 시대에 맞게

확산하고 대중불교를 선양기 위한 것으로 불교계에서는 한마음선원에 이어 두번째로 조성됐다. 영탑은 전체높이 3평에 높이 2.1m, 가로 세로 1.1m 크기로 3가지 유형이 있으며 영탑 17기 9인내지 18인의 유골을 연꽃모양의 도자기 글꼴함에 넣어 안치할 수 있어 가족묘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국대 근거리 통신망 구축

쌍용정보통신과 계약...정보교류 원활 기대

동국대(총장 송석규)에 근거리 통신망(LAN)이 구축된다.

동국대는 원활한 학술정보교류와 효율적인 학사업무 수행을 위해 내년 2월까지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하고 지난 2일 쌍용정보통신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서 양측은 전송속도 1백Mbps를 지원하는 광섬유방식을 적용, 서울캠퍼스의 전산센터인 해회관을 중심으로

청소년 교회연합회 포교원 직할기구로

청소년교회연합회(회장 현성)가 내년 불교청소년의 해를 앞두고 조계종 포교원 산하 직할 청소년단체로 거듭 태어난다.

청교원은 지난 7일 열린 전국규모 청소년단체 결성을 위한 포교원과의 임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청교원은 포교원으

한국불교회 9일 창립법회

한국불교의 대중적 화합과 대중속의 불교 생활화를 기치로 내건 (사)한국불교회(준비위원장 정각) 창립법회가 지난 9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개최됐다.

“한국불교회”는 이날 “작금의 사바세계는 온갖 반목과 질서로 갈수록 냉담해져가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런 난국의 시대를 풀어나갈 지혜를 모으고 몸소 실천함이 오늘을 사는 승가들의 진정한 사명이며, 참수행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국불교회”는 종파를 초월한 전국 각 지역의 스님 2백여명과 불교단체장 1백여명이 동참하고 있다.



○제6차 전국승가학인대회에서 학인들이 서도대회를 벌이고 있다.

“청년 학인스님 화합도모”

직지사 학인대회에 500여명 참석

청년 학인승가의 화합도모 및 수행자세 정립을 위한 제6차 전국승가대학 학인대회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김천 직지사에서 열렸다.

전승현(의장 각원스님)이 주최하고 15개 승가대학 학인 5백여명이 참석해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대회는 예년과 달리 설법대회, 법교경연, 서도대회, 꽃꽂

이, 역경대회 서화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관음스님(직지사 조실)은 법어를 통해 “아집과 법집을 넘어 진리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각원스님은 개회사에서 “이번 대회에서 젊은 청년승가가 이 사회에 환원해야 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토론하자”고 말했다.

정현스님은 지난 2월 초 산 효행교육원 신축공사를 벌이면서 신도들로부터 받은 공사기금중 2억원가량을 무단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찰 신도부회장 심용진씨는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며 정현스님이 받고 있는 혐의가 사실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신도회측은 “심용진씨가 효행교육원공사 건립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각종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신축공사 과정에서 제멋대로 임의계약을 맺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해 왔다”며 맞고소할 방침을 밝히고 있어 당분간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盧씨 사찰행 결사저지

대불련, 진상조사 촉구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상인)는 지난 5일 전국주부중앙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찰행 가능성에 대한 불가입장을 천명했다.

대불련은 이날 회의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제2 백담사 음모를 결사 저지하기로 결의하고, 김영삼 정부의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일제강탈 문화재 135점 반환

山口여대서 백월선사비 탁본등 경남대에 기증

지난 94년 9월 일본의 개인 소장자인 하치우마 타다스(八馬理)씨가 우리나라 유물 383점을 중앙박물관에 기증한데 이어 일본 야마구치(山口)여자대학이 한국의 회귀 고전적경남대에 기증키로 해 해외로부터의 문화재 환수작업에 밝은 전방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경남대(총장 박재규)는 “야마구치여자대와 ‘한국 관련 주요자료 기증 조인식’을 맺고 이 대학 문고에 보관중인 총 98종 1백35점의 회귀본 자료를 기증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燈)탑비탁본)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지에서 이 자료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임창순 문화재위원장은 “국내에서 발견된 회귀자료들이 많아 당시의 생활상과 문화수준을 가능하게 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로 유출된 우리문화재는 세계 17개국에 모두 6만4천8백 52점에 달하며, 이중 일본은 거의 절반에 이르는 2만9천6백37점을 보유하고 있다.

요한 마무리 작업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최종 이사 13명을 확정했다. 태운스님, 공우스님, 법장스님, 각현스님, 본각스님, 성운스님, 자광스님, 종립스님, 도원스님, 경원스님, 성광스님, 박선영교수, 박광서 교수 등이다.

생명공양실천본부

내달 사단법인 설립

생명공양실천본부가 생명나눔실천본부(본부장 법장스님)로 명칭을 바꾸고 오는 12월경 사단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오는 16일 관훈동 본부 사무실에서 사단법인 설립에 필

신·편입생 요강 확정

중앙승가대학

중앙승가대학(학장 송산)이 96학년도 신·편입학 시험요강을 확정했다.

중앙승가대학은 선발 전형일자를 96년 1월24일로 확정하고, 내달 11일부터 19일까지 원서를 교부키로 했다. 또 신·편입생은 고교내신성적(신입) 전적 학교성적(편입)과 불교교리 시험, 면접 및 인성검사 결과로 선발한다.

복지시설 운영 보조금 지원

조계종 익명 독지가 1억원 기탁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은 교계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11월까지 양로원, 교아원, 재활원 등 관련복지기관에 운영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계종 복지재단은 오는 16일까지 무의탁 노인, 아동 보호

본동복지관 두달째 ‘행정공백’

동작구청 무자격자 관장임명등 재계약 황포

동작구청이 퇴직공무원의 직 무연장의 일환으로 무자격자인 공무원인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임명하려 하고 있어 교계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관 협회 등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재단법인 태고원이 동작구청으로 부터 위탁받아 지난 90년 10월부터 운영해 온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신례)은 지난 8월 말로 5년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신청했으나 동작구청(구청장 김기욱)이 관장임명권을 운영권자가 아닌 구청측에 위임한다는 수정된 약정서를 법인측에 강요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이로인해 본동복지관은 두달이 넘도록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지원금 또한 받지 못하는 행정공백상태에 처해있다.

동작구청측은 운영권자인 본동복지관이 새로 작성한 약정서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북

지관을 구청에서 직영할 수 밖에 없다고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현 복지관계법에는 복지관 관장임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이같은 부당한 조치

명성여고 524명 수계법회 현장

“향과 꽃으로 칭하옵고, 향과 꽃으로 맞이합니다.”

총합 명성여고 5백24명의 학생들은 지난 8일 불제자가 되기위해 구룡사 만불보전을 찾아 부처님전에 향과 촛불을 사르고 합장했다.

계를 받기위해 새벽이슬을 머금고 갖 피어난 연꽃처럼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한 여학생들은 구룡사를 찾아 저마다 그동안 거뒀다고 다부고 했던 온갖 번뇌들을 소멸코자 발원했다.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

“초발심 여학생 한 목소리로 참회진언 염송”

진언을 염송하는 모습은 엄숙하다 못해 출가수행자들의 수계의식을 연상할 정도로 잠엄했다.

이날 처음 수계를 받은 이 동림(2년, 법명:무상행)양은 “오늘 수계법회를 계기로 참다운 불자가 된 것 같다”며 “불교가 가르쳐준 법칙을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형중교사는 “5계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윤리관·종교관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 불교의 과제”라며 “오늘 수계법회를 계기로 학생들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명랑하게 생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근)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이 명성여고 5백24명에게 불제자가 된 수계법을 내리고 있다.

부처님 진신사리 35과 봉안

해인사 길상암, 불광보탑 제막식 봉행

해인사 길상암(주지 명진)은 지난 4일 사부대중 1천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처님 진신사리 35과를 봉안한 불광보탑 제막식을 봉행했다.

이날 봉안된 불광보탑은 신라 오로리 5층석탑을 본떠 만든 것으로 보탑안에는 불사리 35과를 비롯 77개의 3층 도자기탑, 무구경광 대다라니, 경전, 목함들이 봉안됐다.

지난 68년 원력을 세워 26년간의 노력 끝에 불사를 마친 명진스님은 “앞으로 이 자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래서 보다 평화로운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길상암은 불광보탑 제막식에 이어 미륵전 불보점안식과 53불 불조전 건립 회향식도

자연보호 등반대회

5일 대불청 대각청년회

대불청 부산지구 대각불교청년회(회장 임천)는 지난 5일 경남 연양 신불산에서 자연보호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회원들은 신불산을 등반하면서 등산로 곳곳에 버려져 있는 오물을 수거하고 등산객들을 상대로 자연보호 홍보운동을 펼쳤다.

자연보호 등반대회

5일 대불청 대각청년회

대불청 부산지구 대각불교청년회(회장 임천)는 지난 5일 경남 연양 신불산에서 자연보호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회원들은 신불산을 등반하면서 등산로 곳곳에 버려져 있는 오물을 수거하고 등산객들을 상대로 자연보호 홍보운동을 펼쳤다.